



# “잭팟! 이번엔 내 차례인가”

# 직장인 김철수(35)씨는 최근 들어 휴대전화에 깔린 증권회사 주식 앱을 켜보는 횟수가 잦아졌다. 올 들어 주식에 500만원을 투자한 김씨는 당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 골라 분산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잇따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익률 플러스를 의미하는 붉은색 글자로 가득한 주식잔고 화면을 보여주며 “기본이 좋아 업무 중에도 동료들 몰래 앱을 켜보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가 투자한 2차 전지 관련 주인 ‘금양’은 무려 328.04% (150만3400원)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김씨는 “과거 주식으로 재미를 본 적이 없었어.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기분 좋은 듯 말했다.

# 퇴직공무원 정현숙(여·64)씨는 요즘 신문과 방송을 통해 주식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데 여념이 없다. 퇴직 연금 말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정씨는 최근 주변에서 2차 전지 관련 테마주로 큰 수익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정씨는 “한 종목은 100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편승해야 하는 건가 싶다. 특히 요즘엔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보다 매수·매

## 2차 전지 기업 금양, 52주만에 7400원서 14만5천원으로 ‘경증’ ‘제2의 셀트리온’ 에코프로 올해만 1009% 급등… 130만원 찍어 광주·전남 투자자들 급등주 관심 고조… 포스코홀딩스 최다 매매

도량이 많은 종목들이 많다”라며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황이 좋아 예상 투자금액을 늘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수익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급등주가 등장해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로 ‘주식 잭팟’을 터트려 보겠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지역민들의 급등주 매수·매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6월 광주·전남 지역민이 사들인 주식은 3조9449억원으로 지난 1월(2조 817억원)보다 1조8632억원(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225선으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이날 기준 2636선으로 올랐고 코스닥도 671수준으로 시작해 939선을 보이는 등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지역민들의 투자도 과감해지는 양상이다.

올해에만 무려 1009% 급등하면서 ‘황제주’라고 불리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금양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금양 등은 2차 전지 테마주라는 공통점이 있다. 에코프로는 올 1월 1주에 8만2000원에서 130만원까지 올랐고, 포스코홀딩스는 26만원대에서 67만원, 금양은 1년 만에 7400원이던 주가가 14만5000원까지 치솟으면서 지역 투자자들의 관심이 불렀다.

당장 한국거래소가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자료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 테마주에 집중 투자했다.

전국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6개월 간 거래대금 상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전남에서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번갈아 가며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양은 전국기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경우가 잦았지만, 지역에서는 줄곧 7위권 이내를 지키고 있다.

코스닥에선 에코프로가 올해 단 한 번도 거래대금 상위 1위를 내주지 않았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WM센터장은 “광주와 전남은 과거부터 값비싼 ‘대장주’보다는 테마주에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는 종목인 2차 전지의 경우 지역에 사업장은 없지만, 광양제철소가 있어 포스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들이 2차 전지 테마주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 해당 분야 주식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역 투자자들의 수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인하 광주은행, 1%P 특별 감면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5일 ‘KJB 새희망홀씨대출’ 특별 감면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총 450억원 한도로 ‘KJB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 금리 1%포인트 인하를 시행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비제도권 고금리 금융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광주은행이 지원하는 대표적 서민금융 지원 상품이다.

금리 감면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취급 시 자동 적용되며,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광주은행은 보다 확대된 상생경영을 실천하고자, 이날부터 연말까지 저신용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취급된 가계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비트코인 2만8865.39달러 6월 22일 이후 최저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3만 달러를 넘나들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6시50분께 급락해 2만9000만 달러로 하락했다. 이어 이날 오전 2만8865.3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6월 22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차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2만9088.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하루 전보다 2.95% 떨어진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업체 이토로의 칼리 콕스 애널리스트는 “3만 달러 가격은 중대 사건이다”며 “이 부근에서 투자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된다. 가격 회복은 언제나 선행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전남대 현장실습교육 성황리에 마쳐

(주)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력 현장실습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5일에 밝혔다.

〈사진〉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된 교육은 매장업무와 지원 부서별 업무, 마케팅 전반, 현장실습 등 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이번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신세계에 대한 이해와 유통 흐름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이라며 “향후 취업 준비에 저희 교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에서의 현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제공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해 진로,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 현장실습 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고령층 10명 중 6명 경제활동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처음 60%를 넘어섰다. 일을 하는 고령층의 70% 상당은 앞으로도 일을 하길 원했으며, 이들은 평균 73세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48만1000명이다.

역대 최대치인 전년 동월 1509만8000명 대비 38만4000명(2.5%) 증가한 것으로, 10년 전(1084만5000명)보다는 무려 40% 넘게 증가했다.

당달야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했는데,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작년보다 34만9000명 증가한 932만1000명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는 912만명으로 전년 대비 34만9000

명 늘었고, 고용률도 5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인구 중 68.5%인 1060만2000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5.8%)’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5.6%)’ 순이었다.

여성(60.3%)보다는 남성(77.3%)이 일하고 싶어 하는 비중이 컸다. 또 앞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는 고령층 인구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250만원 미만(19.8%), 150만~200만원 미만(18.6%)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의 비율은 50.3%(778만3000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원으로 작년보다 8.6%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자동차 ‘선방’…광주·전남 수송장비 수출 증가

### 상반기 57억6500만달러 수출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광주·전남지역 수송장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수송장비 수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송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46.4% 증가한 39억6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역시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7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의 수송장비 수출은 단연 자동차가 이끌었다. 광주는 승용자동차가 55.0% 급증한 것에 이어 화물자동차 10.5%, 타이어 11.2%, 자동차부품

광주 전년비 46.4% 늘어난 39억6800만달러… 승용차 55% 급증  
전남, 승용차 158.2%·수송기기 153.9% 급증… 호조세 이어갈 듯

0.02%, 기타수송기기 등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전남 역시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선박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은 승용자동차가 158.2%나 급증, 기타 수송기기도 153.9%나 늘었다. 이어 자동차 부품도 50.7% 증가했고, 선박은 16.2%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23.8% 줄었다.

광주·전남 수송장비 수출은 전반적인 수출 악화

상황에서도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자동차 수출은 반도체 수급 적체가 해소되면서 생산 라인이 100% 가동 중이다”며 “하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지역 선박수출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선박 수주가 남아 있어 역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광주조달청-신안군 상생협력 방안 논의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노배성)은 25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박우량 신안군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 기관은 잠재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더 많이 진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신안군의 ‘퍼플섬’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지역 여행상품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여행상품 서비스는 지자체와 조달청이 계약주체가 돼,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해 학생이나 정부,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제공된다.

노배성 청장은 “지역기업이 생산하는 조달우

수제품 구매와 시설공사의 조달청 물주를 당부드린다”며 “신안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36.46(+7.93)
▲ 코스닥	939.96(+10.06)
▲ 금리(국고채 3년)	3.645(+0.028)
↓ 환율(USD)	1275.40(-4.50)